

9면에 이어서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속적으로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특허사업화협의회와 민간주도의 특허엔젤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특허사업화협의회의 경우 사업화 단계별로 일괄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원규모는 1,246건으로 559억원에 달했고 금년 지원 예산은 1,039억원이다. 이와 함께 우수발명제품 제작지원이나 우수발명우선구매 추천도 병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인재양성사업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권 인재개발 교육은 그동안 오프라인 중심으로 대부분 서울에서만 개최돼 왔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지난 5월 학력, 연령, 지역에 상관없이 자신의 필요와 수준에 맞게 선택해 온라인 상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한 온라인 교육시스템 사이버국제특허 아카데미(www.ipacademy.net)를 개설했다.

이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는 일반 단기 연수교육 및 위탁·해외연수, 특별강좌 도입, 자격증취득 과정 등 오프라인 교육과 함께 온라인-오프라인 입체적 연계 교육시스템을 갖췄다.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는 한국발명진흥회 내에 신설된 인력개발부가 전담 운영하는 특허교육사이트로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무료로 지재권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강사진을 실무경험이 많은 기업 특허부서장과 교수진으로 구성해 사이버 상에서 이론과 실무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정보 제공 사업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권연구센터를 운영, 특허청과 연구협의회, 비상임 연구원들이 선정한 정부기관 및 기업체의 연구용역과제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센터는 국내

외 지식재산권의 동향조사·분석은 물론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해외 지재권 연구기관과의 유대강화 활동에 앞장선다.

또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나 유럽특허청(EPO) 및 각국 특허청, 세계발명가협회연맹(IFIA) 등의 국제기구와 교류를 통해 세계 지식재산권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중국, 몽골과 지식재산권 정보 및 자료교환 등 협력 관계를 갖고 있으며 한·중·일 3국 발명단체장 정례회의 개최도 추진 중이다. 그리고 특허기술평가실을 운영, 기업과 개인의 특허기술 가치평가와 사업타당성 평가를 지원하고 있고 특허기술분석도(PM)를 개발해 기술개발의 지표로 삼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오는 12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2002년 서울국제발명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에는 미국, 일본, 유럽 등 30여 개국의 특허선진국이 참가할 예정이며 발명 관련 국제기구의 협조를 얻어 개최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대학생 발명동아리연합회를 구성하여 지재권 교육, 동아리 경진대회, 창업 및 사업화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시아 청소년 발명전 개최도 내년 7월 대한민국 학생발명전과 동시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처럼 날로 확대되는 지식재산권업무의 통합된 서비스를 위해 특허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특허센터에는 특허청서울사무소와 특허정보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여성발명협회 등 특허 유관기관을 한 건물에 있게 함으로써 특허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제도개선 범추진특별위원회출범식 개최

범국민서명운동 지난달 29일까지 전개 공인회계사·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

한국세무사회(회장 임항순)는 지난달 9일 한국세무사회회관에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및 공인회계사·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를 위한 세무사제도개선 범추진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29일까지 20일간 5,000여 세무사가 중심이 되어 전국에 걸쳐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일반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현행 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이 독점적으로 보장되어 온 나머지, 조세관련 전문영역 소송대리업무는 국제경쟁력이 낮아져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변호사가 국내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중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세무회계 등 각 분야의 전



지난달 9일,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결의대회를 가졌다.

문지식을 가진 100만 여명의 미국변호사가 물밀 듯이 몰려와 조세소송 등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잠식하게 되어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각 전문영역에 한해서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모든 자격사는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엄정한 시험을 통한 바람직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정착"이라는 대원칙 아래 변호사에게 조세법의 전문적 지식의 검증 없이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과 자격사법의 제정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세무회계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에 의한 세무대리는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에 있어 공공성이 침해되거나 소비자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여성향토문화연구원, 제3차 학술 세미나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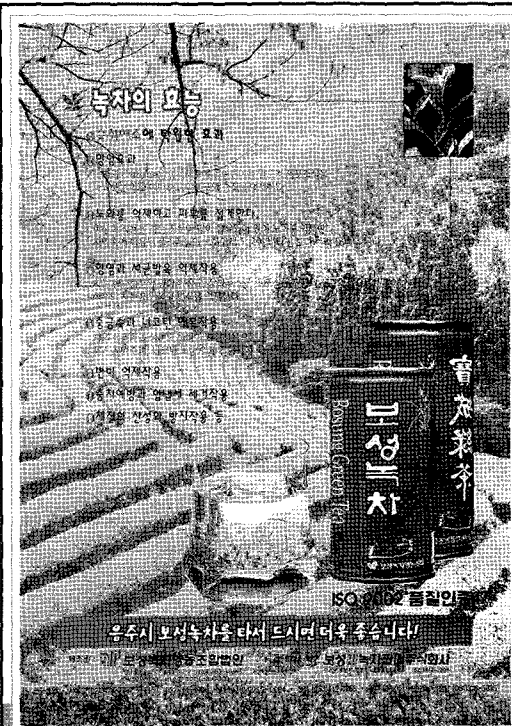
『동양여성의 위상찾기』 주제로
중국 역사와 문화 속 여성연구

한국여성향토문화연구원(원장 차옥덕)은 지난달 29일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동양여성의 위상찾기(중국 역사와 문화 속의 여성)'라는 주제로 2002 제3차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일본·중국 역사와 문화 속의 여성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중심으로 5, 6월에 한국과 일본의 여성에 관해 발표한 것에 이어 이번 세미나

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 속의 여성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이어졌다. 연세대학교 김선자 교수의 '중국 신화 속의 여성'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중국 역사 속의 여성'이라는 관동대학교 정두음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이 외에도 '무축천의 대한 재평가'에 대해 한국여성향토문화연구원 차옥덕 소장과 김송숙 전 북경신문 기자가 함께 발표했으며, 성신여대 강선화 교수는 '중국 문화 속에 나타난 여성과 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광고사진이 필요하시나요?

소비자의 눈으로 다가서겠습니다

“보다 더 생생하게 촬영된 제품이
귀사에 도움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산 스튜디오

강남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49-1 산B/D
TEL (02)571-1521
FAX (02)571-1522

인사동점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81-1
TEL (02)730-5663, 732-3407
FAX (02)732-3407